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FEBRUARY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6

골든클럽, 동면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차가운 2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도 오리들은 쉼 없이 움직이며 봄을 기다립니다. 마치 이들의 생명력처럼, 골든클럽 또한 잠시 동면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골든클럽은 격월로 총 6회의 특별한 '토크쇼'를 기획하여 회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은 2월 12일 목요일, 퀸즈 검찰청 검사 출신인 브라이언 정(Brian Chung) 변호사님을 모시고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한 유익한 오찬 겸 토크쇼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건강, 여행, 음식, 경제 등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사를 아우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삶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만남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소식! 3월 7일에는 골든클럽의 연례 출발점인 신년 교례회가 개최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클럽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골든클럽은 더욱 열린 모습으로 비회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는 장을 넓히고자 합니다. 클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고민과 제안,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 큰 울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겨울 호수 위, 다시 움트는 생명의 약동
얼음 위에서 겨울을 즐기는 갈매기 식구들
이행순 1/22/26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회장: 김정필 • 부회장 이영범, 금영천 • 김병순 (사무총장)
편집위원: 금영천, 김병순, 김정필, 여주영, 이영범, 육재희, [상임고문]정해민, 홍종만, 윤현남
44 Macintyre Lane, Alledale, NJ 07401 • jaypkim@keiusa.com • 201-965-7759



존경하는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땅 밑에서는 이미 봄의 꽃순이 생명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든클럽도 그 강인한 생명력을 닮아, 2026년의 첫 문을 여는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조했던 안부를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회원님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저녁 운전의 불편함이 없도록 작년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행사를 시작하오니 달력에 미리 일정을 체크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회비: 1인당 \$120

■ 주요 프로그램

[1부] 보고 및 나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행사 보고 및 투명한 회계 보고
새로운 인연의 징검다리가 될 2026년 신판 주소록 배포
올 한 해의 설렘을 담은 2026년 연간 행사 일정 소개
신입회원 소개

[2부] 축하 공연

음대 동문들의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 (출연: 김희재, 김지유, 정지인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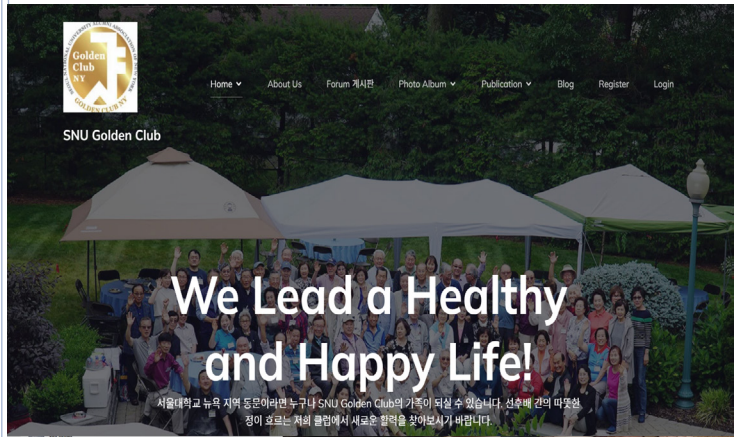
[3부] 친교와 여흥

회원님들의 연세를 고려한 즐겁고 편안한 프로그램
가라오케, 빙고 게임, 장기자랑 및 경품 추첨(Raffle)

따뜻한 햇살 아래 오순도순 모여 정을 나누는 잔칫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님들의 밝은 얼굴을 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뉴욕 골든클럽 공식 홈페이지 (SnuGoldenClub.org) 개설

존경하는 골든클럽 동문 선후배님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골든클럽의 활발한 소통과 소중한 기록 보존을 위해 새롭게 구축한 공식 홈페이지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nuGoldenClub.org>

그동안 다음(Daum) 카페 이용의 번거로움과 카카오톡 사진 만료 등으로 인해 자료를 찾아보시는 데 불편함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클럽에서 직접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기능 및 콘텐츠]

뉴스레터 저장소: 지난 5년 동안 발행된 모든 뉴스레터를 PDF 형식으로 보관하여 언제든지 읽고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아카이브: 카톡방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던 지난 5년간의 소중한 행사 사진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디지털 문집: 뉴스레터에 실렸던 주옥같은 인터뷰, 기행문, 수필 등을 게시판 형태로 정리하여 다시 읽기 좋게 구성했습니다.

회원 참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직접 글을 올리거나 동문들의 글에 댓글을 달며 따뜻한 소통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시어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고, 우리 골든클럽의 새로운 디지털 사랑방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뉴욕 골든클럽 드림

ELEVEN SIXTY

■ 허용웅 토마스 (상대63)

내가 사는 집근처에는 서너곳의 베이글가게가 있다 그런데 나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이들 가까운 베이글 가게를 마다하고 일부러 먼곳을 찾아간다 이유는 그가게의 친절함 때문이다

내가 들어서면 그가게의 백인할머니가 반갑게 웃으면서 11불 60센트를 외친다 사연인즉슨 우리부부가 항상 똑같은 주문을 하기 때문이다 즉 Toasted whole wheat bagel 1개를 주문하고 그속에 Low fat veggie cream cheese 를 듬뿍 발라주고 그리고 커피 2잔을 주는값이다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자리에까지 가져다준다 그러면 우리는 2불 Tip를주고 그리고는 또 마주보고 덕담한마디씩 건넨다 Have a wonderful day, You too! 그네들의 친절함 미소에는 꾸며낸 가식이없다 그리고 그미소는 아침의 대가처럼 신선하고 순수하다

종업원들은 백인도있고 흑인도있고 히스패닉계통의 사람들도있다 그들이 손님들을 친절히 응대하며 열심히 일하는것을 보노라면 아침의 활력이 느껴지기도한다

사실 베이글맛은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그러나 그들의 친절은 그들의 베이글을 더부드럽고 따뜻하고 풍성한맛을 느끼게 해준다 가끔은 베이글가게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볼때도있다 그때 그사람들 역시 서로가 거의 모르는 사이이지만 그가게의 친절함 분위기때문인지 묘한연대감을 갖는것같다.

또 손님들이 기다리는것을 조금해하지 않는것을 보노라면 이가



게의 친절함 미소가 손님들을 부드럽게 통제하는것 같기도하다 이친절한 베이글가게에서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둥글둥글한 베이글같은 친절을 배우고 싶다

사실 우리는이제 베이글 반토막밖에 더는 못먹는 나이가되어버린게 아닐까?



1월 21일 (수) 저녁 객선섭 회원(공대60)께서 주위에 있는 여러 회원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와 음악감상후에 공대와 비공대로 나누어 모처럼 윗놀이를 했습니다. 구경을 미리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반도체 칩에 지지 않는 따뜻한 별처럼

■ Sammy Ahn

골든클럽 회원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중학교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왕복하면서 어린학생들의 미래를 컨설팅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딸 4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1.5세대입니다. 한명은 미국 육사생도이고, 둘째는 스탠퍼드 컴퓨터 공학 전공학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낯선 땅에서 땀 흘려 일구신 단단한 토대 위에서 저희 세대는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문명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하고 대부분의 전문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는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지식의 양이나 정답을 맞히는 속도로는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녀와 손주들이 이른바 '사'자 돌림 전문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강남의 학원가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향한 열풍 뒤에는 전문직 면허가 평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번역가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소통합니다. 로봇이 인간 의사보다 훨씬 정교하게 수술을 집도합니다.

똑똑한 머리(IQ)는 이제 시장에서 흔하디 흔한 공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력과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인간과 깊이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힘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를 다섯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식은 흔한 탄소와 같지만 인간의 존재감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탄소는 연필심처럼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소가 엄청난 압력을 견뎌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가 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이제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빛을 내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둘째로 인공지능은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지만 인간은 목적지를 정하는 탐험가입니다. 기계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너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몫입니다. 기계는 '어떻게(How)'를 해결하지만 인간은 '왜(Why)'를 묻습니다.

셋째로 인공지능은 완벽한 음반이지만 인간은 심장을 울리는 라이

브 가수입니다. 디지털 음원은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노래를 재생합니다. 하지만 가수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눈빛이 주는 감동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계적인 정답을 내놓는 아이보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날 것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넷째로 지식만 많은 것은 차가운 빈집과 같고 높은 감성 지수는 따뜻한 아궁이와 같습니다. 집이 아무리 으리으리해도 온기가 없으면 사람이 머물 수 없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팀원을 기분 좋게 이끄는 따뜻한 감성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섯째로 벽돌은 기계가 쌓지만 설계도는 건축가가 그립니다. 벽돌을 몇 장 쌓을지 계산하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사람이 어떤 행복을 누리고 어떤 꿈을 꿀지 설계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통찰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주변에서 공부만 잘하던 수재들이 사회에 나와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반면 화려한 스펙은 없어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팀을 하나로 묶는 친구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광채(Glow)가 있었습니다. 이 광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거울을 보며 입 근육을 훈련했습니다. 목소리와 발음을 가다듬고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심을 연습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은 찾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밝은 미소와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빛은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 강력한 스펙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손주들을 보실 때 이제 성적표의 숫자보다는 그 아이의 눈빛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밥상머리에서 어른들과 얼마나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공부만 잘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교육 공식입니다. 기계는 결코 인간의 따뜻한 손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반도체 칩에 지지 않는 따뜻한 별처럼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응원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ammy Ahn은 여주영 명예회원의 장남입니다.)

[과학 산책]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 오순문(사대68)

인류 성취의 발자취와 21세기의 기대

인류는 불과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동물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활과 창에서 시작해 증기기관, 전기의 발견, 반도체와 컴퓨터, 그리고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지난 60만 년 동안 인류가 성취해온 발자취는 경이롭습니다. 특히 20세기는 '과학의 세기'라 불릴 만큼, 단 100년 동안 생산된 지식의 양이 이전 인류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이후의 세상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활짝 열리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난치병을 치료하며, 핵융합이나 소규모 원자로(SMR)가 에너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수만 년 걸릴 일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미래에도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우리는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인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 관찰: 과학의 본질을 묻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 올리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NASA를 창설하고 과학교육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당시 한국 대학에도 소개된 혁신적인 실험 교과서의 첫 장은 예상외로 매우 단순한 '촛불 관찰'이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양자역학의 궤도함수 대신 촛불이라니,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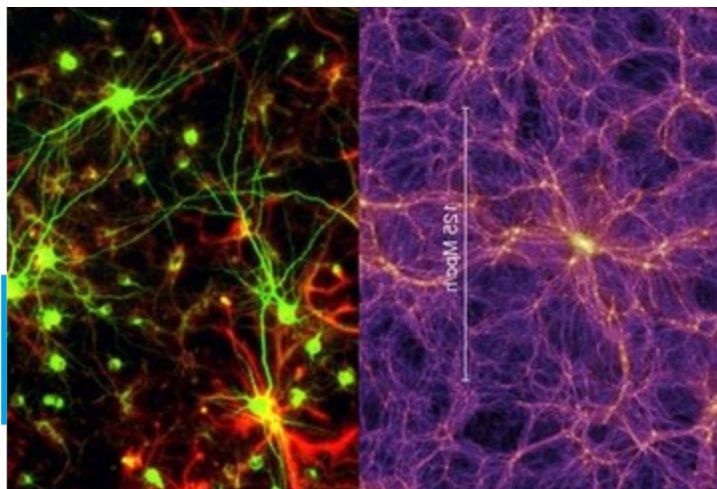
하지만 촛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불꽃 색깔의 층위, 녹아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왁스, 그을음의 생성 등 관찰력이 뛰어난 이들은 수십 가지의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왁스가 열에 녹아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가 기체가 된 후 산소와 만나 연소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핵심인 'Small World'의 탐구입니다.

객관화: 주관성을 배제한 사실의 언어

과학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에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관, 주관적 망상을 배제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물을 객관화하는 것이 과학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에 소금 적당량을 넣었다"는 감각적인 표현은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소금 250g이 25.5℃의 물 350g에 넣어졌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물질인 소금을 주어로 삼고 형용사 대신 숫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성은 인위적 조작이나 주관적 주장이 발붙일 수 없는 과학계의 엄격한 약속입니다.



거시와 미시의 닮은꼴, 그리고 양자역학

뉴턴 역학은 질량과 가속도로 지구와 별들의 궤도를 측정하고 비행기를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시(Macro) 세계의 질서를 정립한 것입니다. 반면 보어의 원자 모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Micro)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뇌세포 신경망의 모양과 우주의 은하단 가스줄기 모양은 프랙탈(Fractal) 구조처럼 놀랍도록 닮

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뉴턴 역학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빛과 전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수학적 파동함수로 포함시킨 양자역학이 출현했습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는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을 확률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대 이후 우주항공과 정밀화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제 비가 올 확률이나 주식 시장의 흐름을 확률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류의 과제

미래 과학의 흐름을 보면 기존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과학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세기 급속한 발전의 반작용으로 자연 파괴, 자원 고갈, 기후 위기,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비례하여 그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문명의 토대 위에 인간 중심의 정신문명이 함께 꽃피는 '대항해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소중한 과제일 것입니다.

(인물포커스 상대64 이대영)

“변화가 두렵지 않다, 도전은 하나의 즐거움”

이번 달 뉴스레터의 주인공은 서울대 뉴욕동창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80의 연세에도 여전히 'Early Adopter'로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이대영 동문이다.

안전을 위한 선택, 테슬라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노후

인터뷰의 시작은 최근 구매한 '테슬라'자동차 이야기였는데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 “우리 집사람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운전 시키기가 몹시 불안하였는데 Full Self Drive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면 안심이 되겠다 싶었죠. 최신 버전의 테슬라 Software를 장착한 차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여 보니 핸들을 전혀 잡을 필요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기만 하면 파킹까지 해 주더군요.” 연방보조금 \$7500이 없어져서 아쉽지만 아직도 주정부의 보조금은 남아 있다고 한다.

어린시절 및 청년시절의 추억

일제시대 말기에 충남 당진에서 출생하여 당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하여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외교관이 되려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지원을 하였으나 전혀 뜻밖으로 제2지망학과 (고고인류학과)에 합격하는 바람에 충격과 실망이 매우 컸다. 그 당시 고고학+인류학의 병합학과로서 불과 10명을 뽑는 희귀 학문이었고 불과 4년차의 신생학과여서 학자(교수)가 되기에 매우 수월한 기회였지만 입학시험에 낙방했다는 충격과 실망감을 못 견디고 정치학을 부전공하는 등 철없는 방황을 하였다. 되돌아보며 그는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갈림길의 시작이었다고 회고한다.

ROTC입관후 육군 중위로 예편하고 서울약품/아세아양행 제약회사 그룹에 입사를 하였으나 전망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반년만에 퇴사를 하고 만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경영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을 하면서 운이 좋게 경영연구소장 나웅배박사의 발탁으로 상과대학 조교가 되었고 그분의 연구실을 사용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개발의 선두기업 동명목재상사의 주역에서 이민1세대의 성공사례로

그때는 상경계의 학자(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도 꾸었지만 이번에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없다 보니 취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상대 조순 학장님의 추천으로 그 당시 매년 연속 전국 제1위 수출실적과 사주의 개인세금 납부실적 1위로 명성을 떨치던 동명목재상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 무역부 수출과에서 근무3년 차에 일본지사를 설립하여 지사장으로 오사카에 근무하던 중 사주인 강석진 회장의 첫 부인 측과 일본인 부인 측과의 알력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만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얼마 후에 미국지사장으로 부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미국수출이 연 매출 3천만불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으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좋은 경험을 쌓게 되었다. 1977년도에 부임하여 1980년도에 신군부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회



사가 부당하게 폐업을 하기까지 만3년반 동안 지사장 겸 법인대표로 소위 화양연화를 지냈다. 한국의 여러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지만 미국에 영주하기로 맘먹고 자립하기로 결심한다. 준비된 자금이 없어서 출발은 매우 힘들었으나 착수하는 일 마다 모두 큰 이익을 거두는 행운을 맞게 되어 '연 이은 성공사례'로 남게 된다.

봉제공장: 가장 적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단돈 3만불로 시작하였고 종업인력 30여명의 인건비에서 이익을 남기는 봉제 하청 공장이었다. 메이커에 섭외하여 주문을 받으려면 자존심이 상하고 면박을 당하는 일도 많고, 미싱들을 수리하거나 부자재를 사러 다니는 일이 막노동 일인데,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게 큰 이점이었다는 것 같다. 짧고 굵게 딱 3년을 겪어내면서 목돈을 마련하였다.

완구(Toys)사업: 뉴저지주에서 매상실적 3위라는 대형 완구 및 어린이가구점을 엘리자베스에 있는 건물과 함께 구입하게 된다. 일부만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를 모두 Owners Mortgage 로 하여 26만불이 빚이었는데, 그 해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완구 비즈니스가 대단히 호황이었다. 11월과 12월 두 달의 매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빚을 모두 다 갚을 수 있었고 건물대금만 일부 남겨 놓았다. 그 후에 Toys R Us 라는 대형 완구 체인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 들었고 5년 만에 가게는 없애고 건물을 다른 업종에 세를 주게 된다.

뷰티씨플라이: 뉴저지장로교회에서 교우였던 한 성도님이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처음으로 뷰티씨플라이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고, 그 후로 교우들이 따라서 동업종을 개업하게 된다. 이대영 동문은 마침 뉴욕 자마йка 흑인 상권에 건물을 매입하여 세를 받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10년 동안 뷰티씨플라이 사업으로 또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흑인사회와 유대, 진정한 한인 리더의 길

이대영 동문이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끼는 활동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에 뷰티씨플라이 협회를 이끌며 펼쳤던 사회공헌 활동이다. 1992년 LA 폭동과 브루클린 애플청과상 사건 등 한흑간의 인종갈등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휴화산 같은 상태여서 한흑화합을



할렘의 흑인지도자 Al Sharpton 목사와 Wyatt Walker 목사와 함께

위한 활동이 절실하였다. 유력한 흑인 지도자들과 유대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흑인학생들에게 장학금수여식을 하면서 흑인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이대영 동문이 조사를 하여 보니 그 당시에 뉴욕에는 유명한 Al Sharpton 목사와 4명의 연방의원(Charles Rangel, Ed Towns, Floyd Flake, Gregory Meeks)이 정치 지도자로 있었으며, 종교계 지도자로서 할렘에 한국의 한경직 목사 같은 존재로 Wyatt Walker 목사가 있었다. 할렘 한복판에 있는 유서 깊은 흑인교회Canaan Baptist Church에서 흑인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학생10명 각\$500씩 장학금 수여식을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후로 한인 사회에서도 신생 단체였던 뉴욕뷰티씨플라이 협회는 일약 주목받는 직능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고, 30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뉴욕에 크게 성장한 기업들도 생겼고 따라서 성공사례가 속출하여 직간접으로 협회와 관련을 가진다.

결혼 및 자녀

동명목재 부산본사에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의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에게 편지를 써서 규수감을 추천 의뢰하였다고 한다. 부산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한 제자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개신교 고려신학과의 본부 교회이던 부산 삼일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제1호 여자 권사였던 장모님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권유와 조건들을 모두 수용해서 결혼에 성공하였으며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교회의 반주자였던 신부후보와 데이트, 결혼식에 대한 에피소드가 무척 재미있으나 생략. 세 자녀 중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살고 있고 막내 아들만 결혼한 상태이다.

동문회와 음악회 회상

제39대 서울대 뉴욕지역 총동창회장을 역임할 당시 이사진을 91명이나 확보하여 기록을 세웠던 것과 골프대회와 송년파티에 모두 대

성황을 이루었던 것을 돌아보며 그토록 협조해 주신 동문님들에 대한 고마움의 빔을 지고 있다고 한다. 명문 음대의 우수한 자원을 가진 서울대 뉴욕 동문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매년 개최하는 상설음악회를 갖기 위하여 '서울대 뉴욕음악재단'을 설립하였고, 50명의 이사를 확보하였다. 동문회장을 퇴임하는 사람 중에서 2년씩 이사장을 맡도록 하는 정관에 따라서 이대영 동문이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그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선 결과 제1회 음악회를 퀸즈의 대학 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일부 철없는 동문들의 성화 때문에 중단해야 했던 것은 그 이후로 아무도 그러한 규모의 동문음악회를 못하는 것만 보아도 더 버티었어야 했다고 몹시 아쉬워한다.

대박은 따로 있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팬데믹 가운데서 모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대영 동문은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족 몰래 모든 현금자산을 털어서 주식을 사는 모험을 한다. 그 후에도 건물 하나를 팔아서 전액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 지금 그 결과는 초 대박이다. 그는 동문들에게 소액이라도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한다. 매일 주식시장을 관찰하는 것은 세상변화에 적응하며 삶에 활력을 준다고 강조한다.

"오늘도 나는 출근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

지금 이대영 동문의 일상엔 골프 외에 우쿨렐레와 팝송으로 가득 차 있다. 한때 수준급의 유희 실력을 뽐내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머리를 쓰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악기연주와 팝송가사 외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이대영 동문의 **단정한 아침**이다. "아무런 약속이 없어도 아침이면 언제나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만큼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을 존중해야 자존감이 생기고 바른 자세와 바른 정신이 깰 것 같아서요."

회원 명단 (111명 / 2026-1-25)

강교숙	김상만	박상원	오순문	이대영	정해민	홍정표 홍중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박준구	오용호	이영범	조상근	
강영선	김영덕	박희병	오인석	이용대	주상선	
계동휘	김영만	배상규	우규환	이위곤	주재양	
고애자	김우영	성기로	유무영	이전구	진봉일	
곽선섭	김익성	손갑수	육재희	이종대	천병수	
권문웅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종석	천종화	
권정덕	김창수	손대홍	윤상영	이준행	최병우	
홍선경	김종정	남종현	윤재욱	이행순	최순채	
권영대	김치갑	손옥화	윤종숙	이흥빈	최준희	
권태전	김태일	송근숙	윤현남	임도혁	최진영	
금영천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임호순	최한용	
김광수	김현중	송현자	이민제	전문준	최학주	
김광현	노승만	송학린	이상무	정도현	한민우	
김동건	노용면	송혜순	이상원	정수일	한용오	
김문경	문 선	신두식	이승준	조달훈	한태진	
김문언	민준기	신진식	이 준	조승자	한용희	
김병순	박기환	신응남	이대연	정준영	허용웅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16명 / \$1800 / 2025-1-25)

강에드	홍종만
김상만	홍예경
김영덕	(2027)
김정필	윤종숙
손대홍	
남종현	
신진식	
윤종숙	
이강홍	
이상무	
이행순	
윤상영	
주상선	
최준희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8명 / \$4,200 2026-1-25)

강에드 300	홍종만 1000
이강홍 500	
이행순 300	
김영덕 1000	
김정필 300	
신진식 500	
최준희 300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행사 2026

2월	12일(목)	Talk show (Hilton Garden Inn)
3월	7일 (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4월	10일(목)	하이킹
	23일(목)	골프대회
5월	21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28일(목)	MOMA 방문
6월	11일(목)	피크닉 (모호크 지역)
	25일(목)	골프대회 Walkill
7월	23일(목)	골프대회 Meadows
8월	20일(목)	골프대회
9월	24일(목)	골프대회
10월	15일(목)	미네와스카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골프여행



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애자 (사대58) 이영범 (공대71)
권문웅 (미대61) 이종석 (상대57)
김익성 (상대53)
김정필 (공대71)
김창수 (약대64)
김현중 (공대63)
여주영 (명예)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 든 클 럽 회 비 납 부 양 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 후원금 (\$))

주소 (Home):